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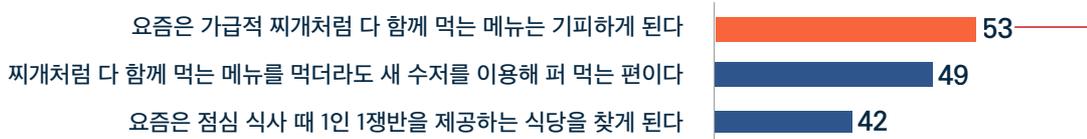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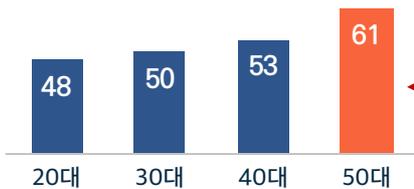
코로나 발생 후 직장인 점심 식사 인식 변화, ‘찌개처럼 다 함께 먹는 메뉴는 기피하게 된다’ 53%

- 직장인들에게 코로나 발생 후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았는데, 찌개처럼 다 함께 먹는 메뉴는 피하게 되거나(53%), 다 같이 먹는 음식이면 새 수저를 이용하거나(49%), 1인 1쟁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선호하는(42%)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‘찌개처럼 다 함께 먹는 메뉴는 기피하게 된다’는 의견에 대해 연령별 응답률을 보면 50대가 61%로 가장 높았는데, 음식 공유 문화에 익숙한 중장년에서 오히려 함께 먹는 음식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임

[그림] 코로나19 발생 후 직장인의 ‘점심 식사’ 관련 인식 변화 (%)



[그림] 찌개처럼 다 함께 먹는 메뉴는 기피하게 된다
(‘그렇다’ 비율, 연령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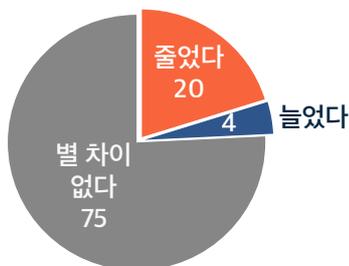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트렌드모니터, ‘2020 직장인의 점심식사 관련 인식 조사’, 2020.06.03.(전국 만 19-59세 직장인 남녀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05.12.-15)

● 코로나 이후 점심 식사 ‘함께 동행하는 숫자 줄었다’ 20%

- 코로나 이후 점심식사 동행자 변화에 관해서는 직장인 5명 중 1명(20%)은 ‘함께 동행하는 숫자 줄었다’고 응답함
- 또한 점심식사 시간을 빨리하거나 늦추는 등 점심식사 시간을 탄력적 운영한다는 응답자는 23%로 나타남

[그림] 점심시간 동행자수 변화 (%)



[그림] 점심시간 운영의 변화 (%)



*자료 출처 : 트렌드모니터, ‘2020 직장인의 점심식사 관련 인식 조사’, 2020.06.03.(전국 만 19-59세 직장인 남녀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05.12.-15)